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 MG어글리푸드 전담식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푸드뱅크(회장 김성이)가 최근 전북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전담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담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이사 김성진, 전북지역본부장 최지능, 전주시·완주군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맛과 영양은 우수하지만 모양과 크기 등 단순 요인으로 인해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농산물(어글리푸드)을 구매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식품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복지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진북동 주민자치위, 안경 50세트 전담식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순)는 최근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대표 이창하)의 후원으로 관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가안경 50세트 전담식을 진행했다.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민센터, 완주군 이서면 지사협 등과 협력·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날 후원한 돋보가안경은 안경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시력에 맞춰 준비되었다.

이창하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 대표는 "돋보가안경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동동동, 일출해물칼국수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선자 동장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지난 25일, 일출해물칼국수(대표 이영재)를 착한가게 4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이는 '1일 1가구 소풍행진'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업체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이영재 대표는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고창초와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교육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지난 30일 고창초등학교(교장 임순일)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의 생육과정 및 쌀의 영양성분과 아침밥을 먹으면 좋은 점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어릴 때부터 아침밥을 먹는 습관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한빛, 레슬링 국가대표 '확정'

완주군청 레슬링팀, 국대 최종선발대회·전국대회 맹활약

완주군청 레슬링팀 이한빛 선수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완주군청 레슬링팀이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2025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와 '제50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맹활약했다.

레슬링팀 선수 4명이 두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고, 이한빛 선수는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5년 국가대표 2차 및 최종 선발대회에서는 이한빛 선수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이진선 선수 은메달, 오정빈 선수 동메달로 금·은·동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제50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는 오정빈 선수가 은메달을, 다른 선수들은 모두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완주군청 선수들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과 훈련의 결실을 맺으며 완주군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한빛 선수는 "이번 선발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



오를 밝혔다.

정환기 레슬링팀 감독은 "선수들의 이번 성과는 앞으로 완주군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신호탄"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7월에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 5종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상의, 출범 맞아 화환 대신 쌀로 지역상생 나눔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출범한 김제상공회의소가 출범식을 맞아 관행적인 축하 화환 대신 '쌀 화환'을 받는 특별한 방식을 택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김제상공회의소는 지난 출범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모인 쌀 650포(2천2백만 원 상당)를 김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량 기탁했다. 또한 출범식 이후에도 화환 대신 쌀을 기부하겠다는 기업과 기관의 동참이 이어지며, 쌀 모금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윤권 대표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상공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쌀 기부를 기획했다"며, "이번 나눔이 상공인들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상공회의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하의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해주신 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김제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권익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독립 경제단체로 김제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연금 임직원, 장애아동 치료비 5000만원 후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최근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5,292만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공제해 조성한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한국장애인부모회(고선순 회장)를 통해 추천받은 장애아동 21명에게 1년 동안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이날까지 총 22명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5억 4천만 원의 재활치료비를 후원했다. 후원금은 재활보조기구 구매,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방임되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 비용을 지급하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 지원 서비스가 대



표적이다.

또한 202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위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무주군 무풍면 박석호씨, 방제복 4000벌 기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주민 박석호 씨가 지난 30일, 일회용 방제복 4천 벌을 무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박석호 씨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노출을 줄여 농업인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방제복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다소 번거롭고 덥더라도 병해충 방제 때 꼭 착용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박석호 씨가 기탁한 일회용 방제복을 지역 농가들이 농약 살포 작업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박석호 씨는 지난해에도 아침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화상영어 지원 사업을 직접 후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천문선 기자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기 아버지 학교 운영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633-1977)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버지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학교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가족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가정 내 아버지의 영향력 이해 △부부 간 소통 방법 △양육 태도 점검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회기인 28일에는 참석자 부인들을 초청해 세족식을 진행하며, 아버지들이 자신을 낮추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울 노원구 호남향우회, 고창군 농특산물 구매

서울 노원구 호남향우연합회(연합회장 최용갑)는 최근 고창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선운산도립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고향방문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국회의원(환경부 장관 지명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800명이 함께해 지역 간 우정을 다지고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이번 방문행사에서 노원구 호남향우회는 고창군 인재육성을 위한 뜻을 모아 고창군정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여 고향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블루베리, 땅콩, 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해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는 소비활동도 이어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멀리서 귀한 걸음을 해준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장관 지명자,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한 향우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지역간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고향과 향우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의 물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한 제7회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27일 김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수도사업소와 환경기초시설 운영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관리자 및 운영자 등 14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수질 개선과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수도사업소, 환경과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시설을 운영하는 대행사(파이나스알앤디 외 4개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호 간 화합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사 5개 업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김제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

행사에서는 축구, 볼링, 탁구, 단체줄넘기, 피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과 이벤트 게임이 진행되며 참가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처럼 화합과 교류를 위한 자리가 지속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실 실무워킹그룹 회의

남원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30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랩실에서 제2차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실무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공동 개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로, 회의 안건별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남원경찰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남원웅성초등학교, 남원시여성가족과 아동학대 담당자 등 관내 아동복지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석,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상 아동에 대한 주 사례관리 기관을 정하고, 변화 점검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면서 아동통합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토론했다.

김미옥 남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회의를 운영해 기관 간 서비스 중복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